



# 직지와 흥덕사 그리고 청주고인쇄박물관

올해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 프랑스에서 공개된 지 35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직지』를 간행한 청주 흥덕사 터를 발굴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유네스코가 1972년을 “세계 도서의 해”로 선포하면서 유네스코본부가 소재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는 도서의 해를 기념하는 많은 행사가 있었다.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도 동 도서관에 소장된 세계 각국의 고서(古書)들을 선별하여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이 때에 프랑스국립도서관 연구원으로 있던 재불학자인 박병선 박사에 의해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로 약칭)』이 금속활자로 찍은 책임이 고증되어 이 전시회에 출품되었다.

『직지』가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으로 인정되면서 국내·외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그 충격이 엄청났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금속활자의 발명은 한국이 아닌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1455년에 만든 『42행 성서』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으로 공인되어 왔기 때문이다.

13세기 초에 한국에서 금속활자를 발명 사용했다는 기록

은 둘째 치더라도 1403년(조선 태종 3)에 만든 계미자(癸未字)가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52년 앞섰지만 서구 사회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국내 학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직지』가 1972년 5월17일부터 10월31일까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개최한 《BOOKS》 특별전에 출품되면서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 문화가 유럽에 소개되었다. 이어 1973년에 열린 《제29차 동양학 국제 학술대회》에서 박병선 박사에 의해 『직지』가 금속활자본임이 고증 발표되었고, 동 회의에 참석한 서구의 학자들에게서 인정받음으로써 한국이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 사용했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

『직지』가 1972년 프랑스에서 공개된 후, 국내에서는 『직지』와 이 책을 간행한 청주 흥덕사를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금속활자본 『직지』는 현재까지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소장된 하권 1책 이외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간행한 『직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1378년

경기도 여주 취암사에서 목판으로 찍은 『직지』는 상·하 본이 3절 전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그리고 1997년 영광 불갑사에서 발견된 것이 그것이다. 또한 1985년 청주 흥덕사가 발굴되기까지 흥덕사의 존재도 알지 못했다. 조선시대 대표적 지리 책인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어떤 문헌에서도 청주 흥덕사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청주 흥덕사는 우연하게 발견되었다. 1984년 12월부터 흥덕사지가 위치한 청주 운천지구 택지개발공사가 시작되었다. 충청북도에서는 1970년 청동으로 만든 범종이 출토되었던 운천동 소재 절터에 대한 발굴조사를 선행하기로 하고 청주대학교박물관에 발굴용역을 맡겼다. 이때 운천동 절터 발굴조사단의 조사원으로 있던 청주대학교박물관 박상일 연구관이 주변 일대를 조사하던 중 새로운 절터를 발견하였다. 이 절터는 발굴 중이던 운천동 절터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박상일 연구관은 간단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984년 12월6일에 충청북도에 제출하였다.

충청북도에서는 현장 확인과 함께 유적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1985년 1월11일에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에 이 절터의 보존을 위해 절터 일대의 공사를 중지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는 공사를 계속하여 절터의 동쪽 회랑에서 중심에 해당하



는 금당지의 유적이 있는 곳까지 훼손이 되었다. 그리고 절터에서 반출된 흙에서 1985년 3월21일 개인이 청동으로 만든 북 1점을 습득하여 골동품상에 팔아 넘겼다가 며칠 후 충청북도에서 회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충청북도문화재위원회에서는 1985년 3월19일 이 절터에 대한 긴급발굴을 결의하였고, 1985년 6월10일에는 청주대학교박물관에서 이 무명의 절터 발굴조사계획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하였다. 충청북도는 1985년 7월2일에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아 1985년 7월19일 청주대학교박물관과 발굴조사 용역을 체결하였다. 발굴조사는 1985년 7월20일부터 10월10일까지 훼손되지 않고 현존하는 서쪽 지역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실시하였다.

절터의 발굴조사 결과 청주 흥덕사는 대략 9세기에 창건되어 14세기말이나 15세기초에 화재로 인하여 폐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절터의 동쪽은 이미 파괴된 상태에서 발굴조사가

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굴을 통하여 확인된 유적은 동남쪽 일부가 손상된 금당지와 동변부가 유실된 강당지, 그리고 원형이 제대로 남아 있는 서쪽 회랑지와 회랑지 끝에 붙은 건물 등이다.

이 절터의 발굴조사를 끝내고 주변을 정리하던 1985년 10월8일 택지공사로 훼손된 절터의 동쪽에서 “흥덕사”라고 선명하게 음각된 청동으로 만든 북 파편이 발견 수습됨으로써 이 절터가 1377년(고려 우왕 3)에 백운화상이 초록한 『직지』를 금속활자로 간행한 흥덕사 터였음이 확인되었다. 흥덕사 터의 확인은 국내는 물론 외신을 통하여 전 세계에 알려졌다.

1986년 전두환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준비 중이었던 프랑스정부에서는 박병선 박사를 엘리제궁에 불러 『직지』와 『외규장각 도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4월15일 차관 협상을 위해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직지』와 『외규장각 도서』를 친견하였고, 미

테랑 대통령의 찬사를 받았다고 한다. 순조로운 차관협상을 마친 전두환 대통령은 파리에서 박병선 박사와 만나 『직지』와 『외규장각 도서』의 중요성을 인지하였다고 한다. 이 때에 문화재관리국에서도 이 유적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1986년 4월25일 문화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5월 7일 흥덕사 터를 사적 제

315호로 지정하였다.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연두 순시하던 전두환 대통령께 충청북도에서는 흥덕사 터의 보존, 정비 계획을 보고하였다. 이 때에 대통령은 흥덕사지 정비뿐만 아니라 전시관을 세우도록 특별 지시를 내려 1992년 3월17일 청주고인쇄박물관이 건립되었다.

이 때에 421평으로 건립된 청주고인쇄박물관은 2000년 6월20일 연건평 1천평을 증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1972년 당시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으로 인정을 받은 『직지』를 전 세계적으로 공인받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01년 6월27일부터 6월29일까지 청주에서 개최된 《제5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회의》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9월4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리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사〉